

월출산

▲ 국립공원 월출산(국립공원 제20호)

국립공원 월출산은 천황봉(809m)을 중심으로 산 전체가 빼어난 기암괴석과 계곡, 그리고 봉우리가 어우러지는 사사자철 신비로움이 극치를 이루고 있으며 예부터 소금강이라 불리며 전국 제일의 등산코스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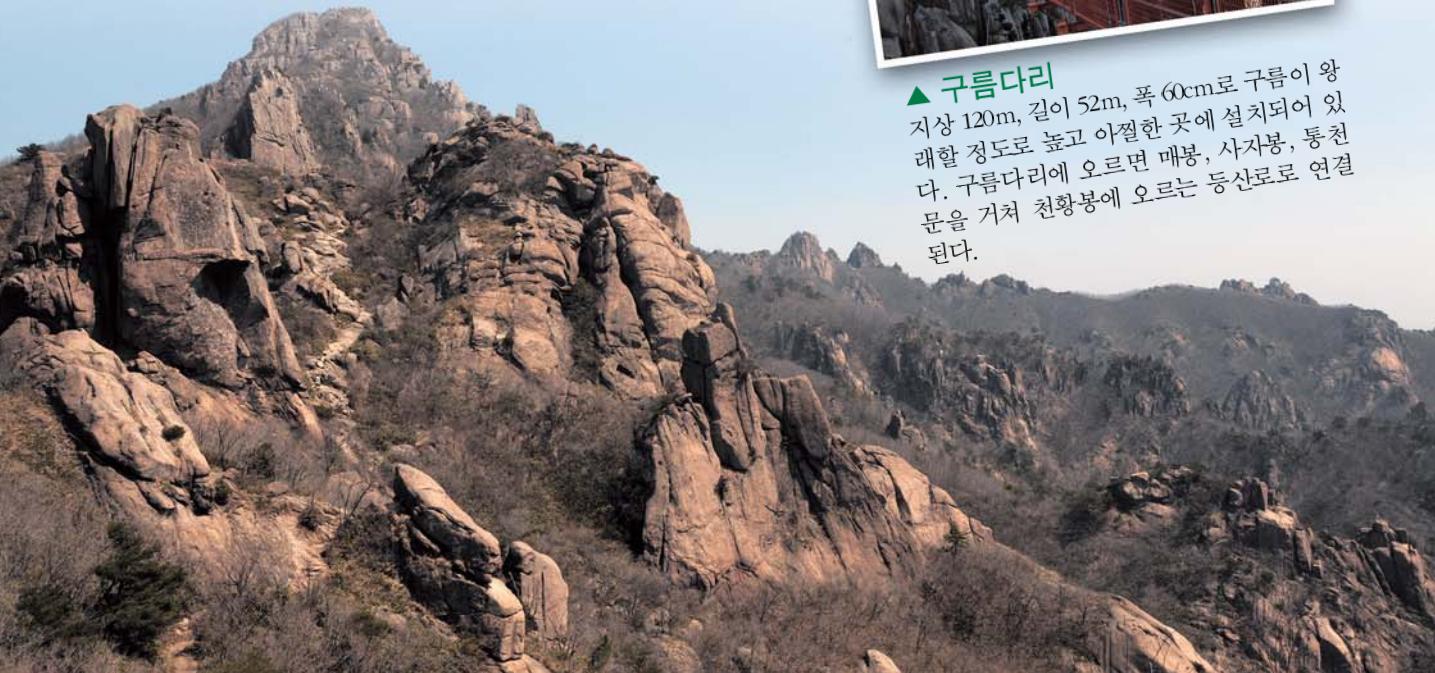
▼ 천황봉

해발 809m의 월출산 최고봉, 이곳에 서면 멀고 가까운 주변의 산야가 한눈에 들어오며 동쪽아래엔 우뚝 솟은 사자봉의 우림한 봉우리와 소백산맥의 여맥이 파도 같은 감동을 선사한다.



▲ 구름다리

지상 120m, 길이 52m, 폭 60cm로 구름이 왕래할 정도로 높고 아찔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 구름다리에 오르면 매봉, 사자봉, 통천문을 거쳐 천황봉에 오르는 등산로로 연결된다.





▲ 월출산 마애여래좌상(국보 제144호)

월출산 구정봉과 용암사 윗절터 중간 지점에 자리하여 서북 쪽을 응시하고 있는 국보 제144호 마애여래좌상, 고려시대의 지방적 석불양식을 보여주며 높이가 8m나 되는 거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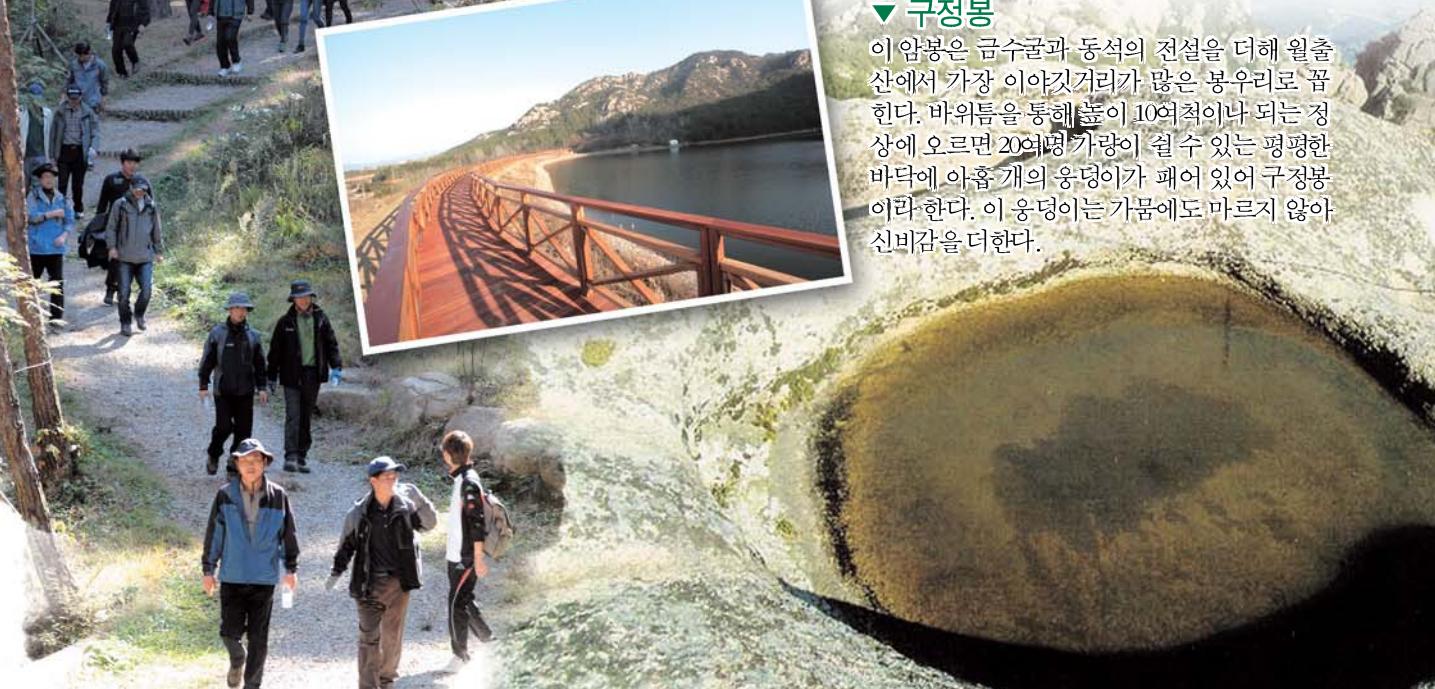
◀ 氣찬못길

지상의 기(氣)를 모아 하늘로 솟구치는 형국의 월출산 기슭을 따라 조성된 월출산 氣찬못길은 월출산의 물(水), 金(林), 바위(巖), 길(路)을 체험하며 피톤치드가 풍부한 숲속에서 월출산의 기를 느낄 수 있도록 보도전용으로 개발된 친환경 건강도로이다.



▼ 구정봉

이 암봉은 금수굴과 동석의 전설을 더해 월출산에서 가장 이야기거리가 많은 봉우리로 꼽힌다. 바위틈을 통해 높이 10여척이나 되는 정상에 오르면 20여명 가량이 쉴 수 있는 평평한 바닥에 아홉 개의 웅덩이가 패어 있어 구정봉이라 한다. 이 웅덩이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 신비감을 더한다.





도감사

▲ 도감사

신라시대에 창건된 도감사는 오르는 길에 아름드리 벚나무가 가득하여 봄철 벚꽃이 필 때면 월출산과 어우러져 매우 아름답다. 도선과 수미를 추모하기 위해 1653년에 세운 도선수미비가 있다. 고려 · 조선시대 3갑사로 유명하였지만 계속된 화재로 아담하고 고즈넉한 외관만이 남아있다.



◀ 석조여래좌상(보물 제89호)

보물 제89호인 미륵적에 봉안된 석조여래좌상은 얼굴이나 몸이 단아하게 표현되었다. 향미촉지인을 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석가모니불이다.



▲ 도감사 해탈문(국보 제50호)

국보50호인 해탈문은 조선 성종4년(1473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건축양식이 독특하다. 기본적으로 주심포 양식이지만 다포 양식이 가미되었다.



◀ 도선국사 · 수미선사비(보물 1395호)

도감사를 창건한 도선국사와 중창한 수미선사의 행적을 기록한 비로 전체 높이가 4.8m에 이른다. 비신 좌우측면으로 쌍용이 서로 엉켜 꿈틀거리는 매우 강한 사실성을 보인다.



▲ 도감사석조(지방문화재 150호)

석조는 물을 담아 두거나 곡물을 씻는 일종의 돌그릇. 도감사의 석조는 타원형에 가까운 배모형이다. 석조 밑바닥에는 구멍을 뚫어 물을 빼내게 되어 있다. 현재는 도감사 대웅전 뜰 앞에 있으며 늘 맑은 물이 찰찰 넘친다.



◀ 도감사 5층석탑(보물 제1433호)

탑은 초기 불교에 있어 신앙의 중심이었으나 점차 불상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도감사 5층석탑은 고려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조형성과 예술성이 뛰어나다.

왕인박사 유적지

▲ 왕인박사유적지(지방기념물 제20호)

구름마을의 동쪽 문필봉 기슭에 자리잡은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그의 자취를 복원해 놓은 곳이다. 유적지 정문인 백제문을 들어서면 좌측에 일본에서 헌정한 일본정화비가 있고, 맞은편에 전시관이 있다. 문 하나를 더 들어가면 안쪽에 왕인사당이 있다.



◀ 왕인묘

이곳엔 왕인박사 묘가 없는 대신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다.



◀ 성천

왕인박사 탄생지에서 계곡 쪽으로 50m 정도 들어가면 조그만 샘이 있다. 이 샘물을 마시고 목욕을 하면 성인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어 인근 마을 사람들이 신성한 샘으로 여긴다.



◀ 문산재 · 양사재

죽정마을 문필봉 중턱에 있는 문산재는 왕인박사가 공부했던 서당터로 조선시대 때 다시 서당을 열고 문산재라 했다. 이곳에서 큰 인물이 많이 나와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몰리자 그 옆에 양사재를 지었다고 한다.



◀ 왕인석상

두 손을 소매 안에 넣은 모습의 왕인석상은 높이가 2.75m정도로 왕인의 제자들이 일본으로 떠나간 스승을 그리워하며 만들어 세웠다고 전해진다. 석상은 왕인박사가 일본으로 떠났던 돌정고개와 상대포를 내려다보고 있다.



◀ 천인천자문

5세기 초 천자문을 비롯한 백제의 선진문화를 일본에 전하여 고대 아스카문화를 꽂고 한·일 문화 교류사를 빛냈던 왕인박사의 천자문을 형상화 해 후세들의 귀감이 되고자 세워 놓은 왕인박사 유적지를 대표하는 조형물이다.



◀ 상대포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는 동안 영암은 출곧 중국과 일본을 잇는 국제항구 구실을 했다. 백제사람으로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아스카문화의 시조가 된 왕인은 영암출신으로 이곳 상대포에서 일본으로 떠났다고 전해진다.

영암 도기박물관

도기박물관은 고대 영산강 유역의 도자문화유산과 통일신라시대 구립마을의 도기 생산역사를 보존하면서 한국도기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전승·연구·개발·교육하는 공간이다.



◀ 영암요

황토의 입지를 조절하여 거칠면서도 투박한 자연미가 살아 숨 쉬는 영암요 소성작품은 장인의 물레 손맛과 1250°C 소나무 장작불의 과학이 만들어낸 명품 도기이다.



◀ 구립도기마터

구립도기마터는 영암의 질 좋은 점토와 빛감, 그리고 서남해안과 연결되는 8·9세기의 대 규모 도기 제작장으로 1986년, 1996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의 발굴조사에 의해 학계에 널리 알려진 한국최초의 시유도기마터(사적 제338호)이다. 가마구조는 아래쪽에서 경사면을 이용해 굴을 파고 들어간 반지하식 단실가마로 요상평면은 밑부분이 넓고 위로 올라갈 수록 좁아지는 독사머리형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돌대장식대호, 사각편병, 주판 알 모양의 유병, 단지, 시루 등 생활용기들이다.



◀ 옹관

영암의 도기전통 가운데 가장 독특하고 경이로운 것이 옹관이다. 입이 넓은 큰 항아리에 시신을 넣어 매장하는 옹관묘 장례풍습은 3세기부터 5세기 중반까지 영산강 유역에서 크게 성행하였다. 이곳의 옹관은 한 봉토 안에 여러 개 또는 십여 개가 매장되어 대량으로 발굴되고 있어 당시의 옹관이 대형화되고, 대량으로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군립河미술관

영암군 홍보대사인 재일교포 동강하정옹 박사가 평생 수집한 마르크 샤갈, 호안 미로 등 국내외 유명 작가의 2,500여점 미술품 기증을 계기로 건립된 종합 미술관이다.

낭산김준연선생기념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며 제헌 국회의원인 낭산 김준연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영암읍 교동리의 생가를 복원하고, 전시관과 사당 등을 마련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 2012년 12월 10일 현충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올바른 역사의식과 안보관을 함양하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영암의 축제

▲ 영암호 해맞이축제

영암군은 새해아침 삼호읍 호텔현대 야외광장에서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과 함께 영암호에서 떠오르는 환상적인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영암호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 주요행사로는 새해맞이 희망한마당, 여명의 대북울림, 만세삼창, 시루떡과 떡국 나눠먹기, 고구마 구워먹기, 신년 소원지쓰기 등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영암에서는 봄(4월 초)에 백리벚꽃길과 함께하는 왕인문화축제, 여름(7월~8월)에는 氣찬랜드와 뱅뱅이골 氣찬랜드 개장, 가을(10월 말~11월 중순)에는 영암 F1코리아 그랑프리와 왕인국화축제, 겨울(1월 1일) 영암호 해맞이축제가 개최되어 사계절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 왕인문화축제

남도 문화관광의 중심지답게 영암에서는 매년 100리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초순경 5년 연속(2008~2012)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영암왕인문화축제'가 열린다. 왕인박사 유적지 일원에서 왕인박사의 정신을 기리는 춘향대제를 시작으로 향토성 짙은 민속예술 공연과 왕인학생선발대회 등 축제의 특성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도전! 천자문 250계단'과 같은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축제마당의 막이 오른다. 영암읍에서 삼호읍 용당까지 38km 구간 벚꽃거리는 환상의 벚꽃을 배경으로 달리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유명하다. 왕인문화축제가 열리는 4월에 벚꽃이 만개해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월출산 氣찬랜드

호남의 소금강으로 한반도의 기운이 응결하여 빙설옥수가 흐르는 월출산 용추골에 아름답게 자리한 氣찬랜드는 천연 자연풀장이 조성되어 수많은 피서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氣찬랜드에 공급하는 수원(水源)은 천황봉에서 발원하여 맥반석으로 이루어진 계곡을 따라 사방댐에 담수하여 천연수만을 사용하므로 최고의 수질은 물론 각종 미네랄이 함유되어 건강에도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뱅뱅이골 氣찬랜드

금정면 활성산의 청정 자연수가 흐르는 계곡을 중심으로 여름철 무더위를 잊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청정 자연형 쉼터로 조성되어 물놀이 피서는 물론 산림욕과 자연학습, 생태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 영암 왕인국화축제

영암군은 아름다운 월출산을 배경으로 주옥같은 시와 오색국화가 어우러진 왕인국화축제를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군서면동구리리 왕인박사유적지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재배한 모형작(팔각정, 기린등), 현애작, 다룬대작, 옥국, 분재국, 동호회원 출품작 등 아름다운 작품 수천만 송이를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및 주전시관에 전시하여 관광객들에게 가을빛 가득한 낭만의 국화축제를 만끽하도록 하고 있다.

▼ 영암 F1 코리아 그랑프리

영암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는 매년 세계 3대 스포츠 경기 중 하나인 F1 국제자동차경주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F1 대회는 2010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누적관중 16만 명이 영암군을 찾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영암호를 마주보는 영암서킷에서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들이 펼치는 짜릿한 스피드와 폭발적인 굉음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F1 이외에도 국내외 자동차 경주가 연중 열리고 대회 기간 이외에는 일반인의 서킷 체험도 가능하다.





▲ 氣찬장터(농축산물 판매장)

비옥한 천혜의 황토에서 생산되는 각종 채소와 과일, 그리고 남도 바다의 질긴 생명력과 기름진 토양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영암군수가 품질을 보증하여 판매하는 장터이다.



달마지 선물세트

氣의 고장 영암의 붉은 황토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고품질 농산물을 엄선하여 구매하고 영암군청 간부공무원 부인들의 모임인 달마지회원들이 직접 손질하여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은 달마지 선물세트는 영암군수가 품질을 보증한다.

달마지쌀 골드

월출산 맥반석에서 흐르는 맑은 물과 황토에서 생산된 영암군 공동 브랜드 쌀. 저농약 유기 질 비료만을 이용하여 재배한 친환경적인 쌀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질좋은 쌀이다.



영암 매력한우

영암의 대표한우브랜드 영암매력한우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최상의 맛!! 영암매력한우는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키워 지방이 적고 육질이 아주 연하여 부드럽고 맛이 고소하며 등급이 뛰어나다.



대봉

맑고 푸른 산골의 배수가 잘되는 사질토와 무기질이 풍부한 황토에서 생산되는 대봉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철분 등의 함량이 높은 저공해 과실로 타 지역보다 색깔, 맛, 향이 월등하다.



영암배

영암들판의 야산을 개간한 황토밭에서 생산하고 있는 영암배는 과육이 유연하고 부드러워 갈증이나 숙취해소에 아주 좋다. 특히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 각종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소화촉진, 이뇨작용, 기침 예방, 해열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어란

옛날부터 진상품으로 유명한 어란은 영산강에서 나는 숭어의 알을 오랜 전통에서 얻어진 특수한 제조법으로 만든다. 참숯어알에 참기름을 바르고 건조하기를 아홉 번 거치는 고급품으로 옛 궁중 진상품으로 애용하였던 별미이다.



무화과

무화과는 해양성 기후에서 자리는데 꽃을 볼 수가 없어 무화과라고 한다. 열매는 쪘이나 과자로 가공되고 생과일로도 판매한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체내 독제거, 피로회복, 위장질환, 빈혈, 부인병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



황토고구마

대단위 야산개발지구의 붉은 황토에서 생산되어 당도가 높고 빛깔이 좋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무공해 식품이다.